Joseph

2016 년 여름수양회 주제 4 강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2016/7/31)
메신저 : 오요셉 목자님 / 선교후보 (미국 Texas A&M)

말씀 / 마태복음 28:1-20
요절 / 마태복음 28:19a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신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부활신앙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선교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의 심령에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Ⅰ. 그가 살아나셨다 (1-6)
1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때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 곧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이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마 20:19) 하시며 부활을 예언하신 바로 그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두컴컴한 때였습니다. 이 어둑어둑한 때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향해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이 트기도 전에 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기름을 발라드고자 함이었습니다.(막 16:1)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을 때나 예수님을 향한 그녀들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으로 가는 그녀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인들의 슬픔은 가시지 않았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녀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그녀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한없이 허무하였습니다. 지난 3 년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의 삶이 현실이 아니고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들의 발걸음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무덤을 가로막고 있을 거대한 돌을 생각할 때 가슴이 짓눌리는 듯 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막 16:3)

그러나 그녀들이 무덤에 왔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까? 2 절을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콰쾅~!” 큰 지진이 일어나며 온 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무덤 문을 굳게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을 단번에 굴려내고 그 위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돌 위에 있는 천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3 절을 보십시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천사는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강력한 번개와 같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고 그 주위를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나는 옷은 눈 같이 희어서 쳐다보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파수꾼들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는 여자들의 내면은 어떠했습니까? 무덤 문을 굳게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은 멀찍이 굴려졌고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돌 위에는 번개의 형상을 한 천사가 앉아서 광채를 발하고 있었고 군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여자들은 심히 무서워 떨었습니다.

천사는 이 여인들을 어떻게 위로하여 주었습니까? 5 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허무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여인들안에는 슬픔, 허무, 절망이 가득하였습니다. 천사들은 이 여인들의 슬픔과 절망을 내가 아노라 하시며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어떤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까? 6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를 통해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 누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던 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징기스칸도, 알렉산더도,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도 어떤 위대한 인물도 사망의 권세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부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놓아두고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망 권세 앞에서 슬퍼하고 허무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6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흘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의 빈 무덤에 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여인들은 이를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돌이 굴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 빈 무덤이야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인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은 천사는 이제 여인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습니까? 7 절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명하였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하였습니다.

천사로부터 부활의 메시지를 들은 여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8 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 할새” 빈 무덤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심령에는 무서움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가슴에 가득하였던 슬픔과 허무와 절망의 어둠이 걷히고 부활 생명의 빛이 비추어 왔습니다. 그녀들의 심령에서 큰 기쁨으로 부활의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 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찬 150) 그녀들은 부활찬송을 힘차게 부른 후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 하였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9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급히 달려가던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향해 "평안하뇨"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마리아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안 대신에 불안과 슬픔, 허무와 절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제하시고 여인들의 심령에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10 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갈릴리 부활절 수양회로 초청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하였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카톡에서 차단하고 인연을 끊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을 '내 형제들' 이라 부르시며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형제요 상속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실패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소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현재 모습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실패 가운데 무너진 현재 그들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부활신앙이 없는 그들의 한계와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며 소망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이 지극히 연약할지라도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임하면 모든 슬픔과 나약함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죽음의 권세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부활신앙이 임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이 믿음과 희망 가운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때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기 위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까? 11 절에서 15 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6 년 서울에서 1 남 1 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세워진 그 순간부터 꾸준한 경제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떠나 어머니의 신앙을 핍박하셨고 이로 인해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밤 다투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잔인하게 해치는 악몽을 꿀 정도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저를 깊은 운명주의로 몰아갔고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비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슬프고 운명적인 삶에서 운동만이 유일한 도피처가 되었고 밤낮 운동에 전념하며 잠시나마 슬픈 생각을 잊고자 했습니다.

2007 년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에 입학했지만 대학생활에 대한 어떤 비전도 없었습니다. 새내기 시절 말씀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센터 형제님들과의 축구, 농구 교제를 끊지 못해 센터와 장막에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 목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닫힌 저의 마음을 여시고 제 안에

말씀을 심으셨습니다. 창세기, 로마서, 디모데후서 말씀 특공대의 일원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한 편의 진실한 소감을 쓸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린 시절 상처와 오해로 굳어진 제 내면의 불신과 쓴 뿌리를 부수고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2 학년 여름수양회에서 인생 소감을 발표하며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인정하게 되었고 누가복음 23 장 34 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슬프고 운명적으로 만든 것이 아버지로 인한 가정불화와 가난이 아니라 저의 깊은 미움과 분노, 음란과 정욕의 죄임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부활의 능력이 제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를 짓누르던 과거의 모든 슬픔과 운명의식,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단번에 파하시고 사망권세 아래 죽은 자와 같던 저를 변화시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사모하여 성전으로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흙수저 신세를 한탄하며 억지로 감당했던 아르바이트를 기쁨과 감사 가운데 감당하게 되었고 학생 리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캠퍼스 역사를 섬길 때 매학기 전공 학문에서 승리하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슬프고 운명적인 인생을 비관하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를 십자가 죄사함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새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Ⅱ.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16-20)

열 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16,17 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부활절 수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나흘길이 넘는 먼 길을 걸어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감격 가운데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여 있는 제자들 앞으로 나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주셨습니까? 18 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의 총사령관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는 어떤 권세들이 있습니까? 삼킬 자를 찾아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거슬러 싸우는 악령의 권세가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영혼뿐 아니라 정신과 육체까지도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하며 파괴시켜가는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는 쾌락적 허무주의를 심는 사망권세가 있습니다. 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마의 권세도 있습니다. 복음을 비웃고 대적하는 거대한 유다이즘의 권세가 있고, 헬라의 지성과 사상의 권세가 있고, 로마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권세가 있습니다. 모슬렘의 권세도 있고, 힌두의 권세도 있고, 공산주의 권세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들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무력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권세들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영적 총사령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죄의 권세가 있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권세가 있고, 병마와 악귀를 쫓아내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연약하였고 무력하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마치 태산처럼 움직일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유다이즘의 권세가 있고, 복음을 비웃고 대적하는 헬라의 지성과 사상의 권세가 있고, 복음을 조롱하는 로마의 거대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세들 앞에 설 때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깊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덧입을 때 연약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19 절, 20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째, 그러므로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가라! Therefore go!” 명령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원수들이 가득찬 세상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주님 권세를 의지하여 가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하여 “그러므로 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둘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금수저 흙수저 가리지 말고, 인종을 구별하지 말고, 중풍이 족속, 세리 족속, 사마리아 족속, 거라사 족속, 니고데모 족속 구별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족속을 사랑하시며 어떤 족속에게도 소망을 두시는 사랑과 소망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먼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한 영혼을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기까지 도우라는 방향입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거듭나 세례를 받은 영적 갓난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 순종하는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고자하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지식을 가르치는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계 선교 명령을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20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 끝 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야말로 연약한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선교사요 목자로서 제자 삼는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권세를 의지하여 죄악되고 인본적인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촌골과 한국과 전 세계 캠퍼스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담대하게 도전하고 헌신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셔서 연희센터에서 똑부러지기로 유명하신 윤하 목자님과 선교 가정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하 목자님 아버지께서 저의 유학방향에 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입사하지 않고 유학을 가면 딸을 줄 수 없다고 하시는 윤하 목자님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쳐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유학생선교사의 비전을 내려놓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결혼하고 편하게 살까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급기야 안면마비 증상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왼쪽 안면 근육 신경이 마비되어 입을 닫을 수 없어 음식물이 줄줄 새나오고 눈을 감지 못하므로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새나왔습니다. 저는 병가를 내어 장막에 굳은 얼굴로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제게 닥쳐온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가를 낸 그날부터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욥기 말씀이 시작되더니 며칠 뒤 4 월 첫 주가 되어 고난주간 말씀에 돌입하였습니다. 저는 고난 말씀 시리즈가 저를 향한 주님의 인격적인 말씀임을 인정하고 남은 한쪽 얼굴마저 마비되기 전에 양식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센터 기도실에 올라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 자신이 얼굴 근육 하나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성실을 의지한 저의 교만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저의 현재 일과 장래 일을 온전히 맡길 때 마비된 얼굴과 현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가 제 안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제 안에 편하게 살고자 하는 소시민의 잔가지들을 제하시고 세계를 먹이는 캠퍼스 목자의 비전을 굳게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간적인 노력과 성실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박사 과정에 지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직장생활, 결혼역사, 유학준비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 3 시간 반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오병이어의 시간을 드려 5 개월 동안 지원 과정을 모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의 부족한 준비와 스펙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Texas A&M 대학을 포함한 세 군데의 대학 기계공학 박사과정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선교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 가정을 일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윤하 목자님 아버님 마음 문을 여시고 결혼 역사를 이루시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믿음의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가을학기부터 저희 가정이 미국 Texas A&M 캠퍼스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권적인 역사로 저희를 친히 인도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캠퍼스에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양성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19a)